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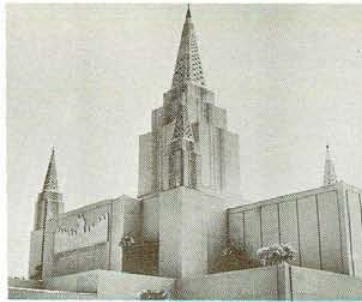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1976



7 페이지



11 페이지



20 페이지



24 페이지

월 간 성도의 벗

제12권 제1호 1976년 1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10월 4일
발행일 1976년 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6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순서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 1 오늘 하루만 더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 21 나는 산을 오르고 있는가? 테렉 디슨
- 27 질의응답
- 29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이 호남
- 30 교회 및 지역 소식

청소년 페이지


- 3 "재빠른 손" 데이비드 에타 린치
- 7 매달 첫 수요일
- 11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제이 엠 헤스롭
- 24 충실한 일꾼 로렌 시 던

어린이 페이지

- 20 말일의 신전 퀴즈
- 14 해맞이
- 18 친구가 친구에게
- 16 심심풀이
- 13 장사

© 1976 재단법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 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 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장기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곳이나 3불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이라면,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이라면,
수많은 싸움을 치른 그때
얼마나 가치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집으로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작자 미상

위의 시 내용은 과연 인생이란 무
엇이나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존
재 이유와 영원한 운명이 어떠하리라

오늘 하루만 더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단 제2 보좌

는 것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
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쟁취
할 것인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
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오늘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
날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영생
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는 물
론 영원토록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요, 어
떻게 하면 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이
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합니
다.

이를 성취하려면 공부하고 익혀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서
그것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할 때 우
리의 구원에 필요하며 우리가 사랑하
여 행복과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
는 간증과 신앙을 굳게 쌓을 수 있음

니다.

복음이 영적 및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들고, 복음 토론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생활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기부금을 좀 내고, 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봉사도 하고, 전반적으로 훌륭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론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생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어본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16-17)

경전은 계명이 무엇이며, 영생 즉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이 주님의 교회, 왕국에서 합당한 전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침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참다운 교회의 회원이 될 때는 회원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무를 배워 임명받은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교성 107:99-100)

우리를 부른 권능의 소유자는 합당한 방법으로 교회내에서 어떤 직책이나 책임을 맡기고는 그것에 관련된 책임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도자로서의 직책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평회원으로서는 역시 중요한 사람들이며, 모임에 참석을 한다면 신앙과 간증을 통하여 서로를 강화시키는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영생

을 안겨 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과 운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나쁜 습관과 약점을 제거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있는 것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골프 선수는 시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싱글샷을 연습합니다.

음악가, 미술가, 웅변가, 누구를 막론하고 숙련되기까지는 그만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현명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여야 되겠습니까?

보다 잘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는 목표를 신중히 선정하고, 왜 그러한 목표를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여하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만 더” 목표를 향해 나아 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할 때 이러한 결단은 하루하루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쉽게 습관이 되게 마련입니다.

나는 복음을 배워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나 지혜의 말씀으로 번민하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웠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앞으로는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도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 하나가 꼭 하루만 견디어 보고, 이것이 가능하면 또 하루만 더 견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한번에 하루를 견디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신이 하루를 구세주의 가르침에 좇아 살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년의 시작이요, 마지막 여생의 첫날입니다. 극기와 결단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보람찬 일년이요 삶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정한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나는 진실한 기도로 하늘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에언자께서 주시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성약과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과 모범으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표준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명된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충실해야 할 때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개조 제13조에 나타난 결의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



“재빠른 손” 데이비드

에타 린치

열 아홉 살 난 데이비드의 가족은 오클라호마주 노만에서 한 5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코만체 인디언인 데이비드는 낡은 자기 차의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뒤편에는 체소 발로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들여다 보셨다. 오스카 할아버지는 백인 사회에서 오랜 동안을 생활하신 분이였다. 그러나 아직도 코만체 말을 쓰셨고, 희끗 희끗한 머리 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닿았다. 술이 달린 가죽 신을 신고 다녔다. 아들들 성화에 가끔 양복을 입는 때도 있었으나 검은 색 나는 구두는 신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에 차 한 대가 고속 도로를 벗어나 데이비드네 집 길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 야단났어요. 프레드 아저씨예요.”

“그래? 그런데 뭐가 야단이란 말이냐? 아저씨가 우릴 졸업식장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잖아?”

데이비드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발을 매고 있는 거나, 제가 기름 범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전 가서 좀 뒹아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없다.” 데이비드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연령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힘이였다. “큰 아버지를 보고 숨다니!”

“할아버지도 숨으세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프레드 아저씨가 오시더라도 옆에 계시지 말고 슬쩍 피하세요. 할아버지도 아저씨 성질 잘 아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난 이미 늙었어. 너는 젊었구.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 세계에 젖어야 된다고. 네 형 조니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너무 늦었어.”

“할아버지는 71살밖에 되지 않으셨

어요. 저하구 제니가 결혼해서 증손자를 보실 때까지 사셔야 돼요.”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내가 제니를 위하여, 날 데려갈 사자한테 좀 기다려 달라구 그래야 되겠구나.”

그들은 함께 웃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제니는 네 그 기름묻은 손을 보구 뭐라구 하니?”

“뭐, 제가 좋은 거면 상관하지 않겠대요.” 데이비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네 자신을 위해서도 몇몇한 것을 잡아야지. 너와 제니를 행복하게 해 주고, 또 네 부모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말이다.”

“틀렸어요.” 데이비드는 내뱉듯이 말했다. “제가 대학엘 가라구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아시잖아요. 고등학교도 가까스로 마쳤죠. 대학에는 들어가서 일학년도 못 마쳤어요. 제니의 부모는 학위있는 사람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나무 밑 의자에 가지더니 털썩 주저 앉았다. “애야, 우리 집은 ‘제빠른 손’을 가진 가문이야. 네 할아버지들은 들소를 잡았는가 하면, 화살 만드는 솜씨는 따를 장사가 없었지. 그러나 네 손은 그분들 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잘 될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는 차에서 내리는 아저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는 등을 돌려 아무렇게나 쌓인 중고 부속 더미에서 가스케트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이 부속 더미가 보기 싫다고 불평이 대단했다.

별안간 아버지가 뒷 문에 나타나셨다. “데이비야, 이리 좀 오련!” 아버지가 부르셨다.

“네.” 데이비드는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가다가 아버지와 가까워지자 점점 걸음을 늦추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너 손 좀 씻고 프레드 아저씨한테 가보렴.”

데이비드는 망설였다. “하던 일 다 하고 가뵈면 안될까요?”

아버지는 기름 투성이인 데이비드의 손을 보고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봐야 될텐데.”

데이비드는 손의 기름을 대강 털어내고는 거실로 들어 갔다. 아저씨는 아버지, 어머니, 형 조니와 함께 있었다. 데이비드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던 이야기를 그쳤다. 데이비드는 꺼리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셨어요?”

아저씨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데이비드 보다는 15센티나 컸다. 아저씨의 점정 양복에는 티하나 묻지 않았다. “아버지 말로는 기름을 닦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데이비드는 언짢은 태도로 말했다.

“그렇다. 네 대학고 진학 문제인데, 아마 네 아버지는 내가 좀 성공했는지 너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서.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학위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없지.” 데이비드는 항의라도 하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대학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너는 인디안이야. 대학 교육을 받아야 유리해. 받고랑이나 파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렴. 교육만 받으셨담, 71살이라도 할 일이 많지.”

“할아버지도 큰 일을 하시죠.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돈은 못 버시지.”

“돈을 버는 것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쓸모없기는 다 마찬가지죠.” 데이비드는 따지듯이 말했다.

“문제는 이거다. 너는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졸업 기념사를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밭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냐?”

데이비드는 분을 참느라고 얼마 동안 안을 애썼다. 그런 다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를 가는 것이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죠.”

“데이비야. 아저씨 말이 맞는다.” 아버지가 거들었다. “넌 평생을 손톱 밑에 낀 기름이나 빼내면서 살거냐?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 손을 뿔뿔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길이지.”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어 손톱을 감쌌다. “저 때문에 창피하단 말씀이군요.”

“아니지, 그런 말은 아니지.” 아버지가 변명조로 말했다.

“뭐, 변명하실 필요없어요.” 데이비드는 아버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티없는 손톱을 들여다 보고 있는 형 조니를 힐끗 쳐다 보았다. 데이비드 편은 하나도 없었다. “제가 형처럼 못 될까봐 그러시죠. 형은 학교 성적하며 창창한 앞날을 자랑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저 보잘 것 없는 노동자가 될까 봐 그러시죠. 창피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말은 괜히 했다 싶었다. 누구든 자기의 말을 부정해 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모두 이 말이 진리인 양 다른 곳을 쳐다 보며 그대로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쓸쓸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먹지 않으면 설 것도 못하고 가겠네.”

“전 안 갑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안 간다구?” 아버지가 놀란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겠지!”

“정말입니다. 기름물은 손 때문에 창피하실텐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어머니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애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구...”

“아니긴 뭐가 아베요.” 데이비드는 뒤도 안 돌아다 보고 밖으로 나가 체소 밭을 향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다시 차를 고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가 현관에서 부르셨다.

“데이비야, 제니가 왔다.”

울적한 기분이었으나 제니를 만나는 즐거움에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종종걸음을 재촉하였다.

“제니는 할아버지하구 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주 예쁘더라. 너 같이 간다구 약속했나 본데 잇었니?”

“어머니는 걱정마세요. 제가 안가는 이유쯤은 제니도 이해할 거예요.”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현관에 둔 채로 데이비드는 거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의자에 앉아 계셨다. 두 손은 짝지를 끼어 무릎 사이에 넣고 계셨다. 제니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제니는 밝은 노랑색 옷을 입고 있었다. 노랑 메이지 꽃을 생각나게 했다. 날선한 손목에 어울리는 시계를 들여다 보며 그녀는 숨을 몰아 쉬었다.

“너희 둘, 서둘러야 되겠다. 아마도 우리 식구가 없으면 시작을 못할 거야.”

데이비드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전 안가요.”

“미쳤어요?” 제니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연사예요!”

“상관없어. 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우리 집안 식구두 제니네 식구처럼, 제가 대학엘 못가고 차나 고친다



구 창피하대요.” 데이비드는 옆에 있는 의자에 백없이 앉아 허공을 물끄러미 쳐다 보았다. “제니, 제니는 할아버지 모시구 가. 아버지 연설은 벌써 엄마 앞에서 연습하는 것 수없이 들었어.”

“그러면 못써! 가족이 함께 앉아야 해. 네 자리가 비면 모든 사람이 물어 볼 거야.”

“전 자리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를 먹어서라기 보다는 패배감으로 굽어진 어깨를 폈다. 순간 굽힐 줄 모르는 젊은 코만체 무사의 면모가 보였다.

“내 손자가 앉을 자리가 없다면 내 자리도 없는 거야.”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니 뒷 문으로 가서 호미를 들고 채소 밭으로 나가셨다.

제니는 노여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게 무슨 것이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졸업 연설을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듣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알게 뭐야?” 데이비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말했다. “식구들은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이나 하신다구 우습게 안다구.”

“그건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가 코만체 옷을 입고 다니실 땐 같이 있고 싶지 않다구 그랬잖아요?”

“그건 달라.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

“그래요? 좋아하는 하지만 모시고 다니기는 싫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않다니까!”

“할아버지가 옛날 코만체식을 고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식구와 내가 데이비드의 손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쁘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의 결혼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 그래, 결혼 안하는 게 좋겠어.”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남편이 부끄러워 아무 베고 혼자 다녀야 한다면 아예 그만두는 게 낫지.” 제니는 문을 거세게 닫고 나가 버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 우두커니 선 데이비드는 적지 아니 실망하였다. 누구보다도 제니는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다. 얼마 후 채소 밭엘 나가 보니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에 앉아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하구 다무었다구 할아버지가 안 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난 안 간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데이비야, 아저씨 차가 움직이질

않아!” 아버지는 당황한 듯 말했다.

“집에 오실 때만 해두 문제가 없었잖아요?”

“글쎄,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 학교까지 50리나 되는데. 너 손좀 봐주련?”

데이비드는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 순간, 거절하여 찢찢매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채 일어섰다. “연장을 가지고 올게요.”

무거운 연장 통을 들고 천천히 차를 향하고 있는 데이비드의 뒤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따랐다. 빛나는 차 뚜껑을 젖힌 데이비드는 아저씨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다. 엔진 부근 여기저기를 확인해 보더니 망가진 부속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신기한 듯 물었다.

“로우터가 부러졌어요.”

“다시 맞출 수 있니?”

데이비드는 어색하게 웃었다.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갈아야 돼요.”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을까?”

“제 부속품 더미에 좀 봐야죠.” 데이비드는 차고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부속을 뒤적였다. 얼마만에 로우터를 찾아가지고는 아저씨 차에 끼웠다. 아저씨가 스위치를 넣었다. 시동이 걸렸다.

“고맙다.” 아저씨는 고맙다는 듯이 웃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넌 네 차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오려

르나.”

데이비드도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싶었으나 웅중하게도 그 말을 못하여 아버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지요.”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간절한 시선을 피하여 다른 곳을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시계를 들여다 보며 말했다. “서둘러야 되겠다. 고맙다, 데이비야.”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가 고속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쓰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손에 기름이나 묻히고 있다구 조롱하더니 차를 고쳐 달래.”

“화도 나겠구나. 그렇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압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니. 멋진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겠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그곳엔 도착하게 해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강한 설득력을 가진 할아버지의 말쑥에 데이비드는 크게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가꾸 싶으시죠?”

“별로 그렇지도 않다.”

“아마 아버지의 연설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싶으실 거구요.”

“글쎄, 그렇기두 하구나.”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수궁을 하고 말했다.

“빨리 가서서 옷 갈아 입으세요. 늦겠어요. 조용하게 들어가서는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검정 양복을 입어야 할까?”

“아무거나 입으시죠. 재빠른 손이 한번 할 일을 했죠?”

40분 후에, 그들은 학교 강당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갔다. 마침 총장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었다.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 나오는 틈에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와 뒷쪽 빈 의자로 갔다. 벌써 몇 사람은 할아버지의 코만체 옷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부끄러웠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니기가 싫었던 것이다.

집에서 연습하는 연설을 몇번 들은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연설은 전혀 놓고 제니를 찾았다. 제니는 다른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앞쪽 중앙 부분에 조니와 프레드 아저씨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 옆쪽으로 자리 둘이 비어 있었다. 데이비드와 할아버지의 자리였다.

갑자기 할아버지는 무대를 가리켰다. 데이비드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 보고 있다가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참다운 의미의 교육자란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교육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학위가 중요하겠읍니다. 우리는 본 대학에서 배출되는 훌륭한 지성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데이비드는 몸을 도사렸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러나 지식에는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하였다. “우리의 문명은 기계에 달려

있습니다.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수도를 고치고, 냉장고나 차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상기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 보았다. 놀라운 일이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일하는 데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신성함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땅을 갈고 먼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감자, 토마토, 옥수수, 땅콩 등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다는 사람도 손톱에 기름이 묻어 있고 거친 사람을 보면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가 쌓은 훈련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문명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우피도 앞 자리에 가서 앉아요.” 데이비드가 나직히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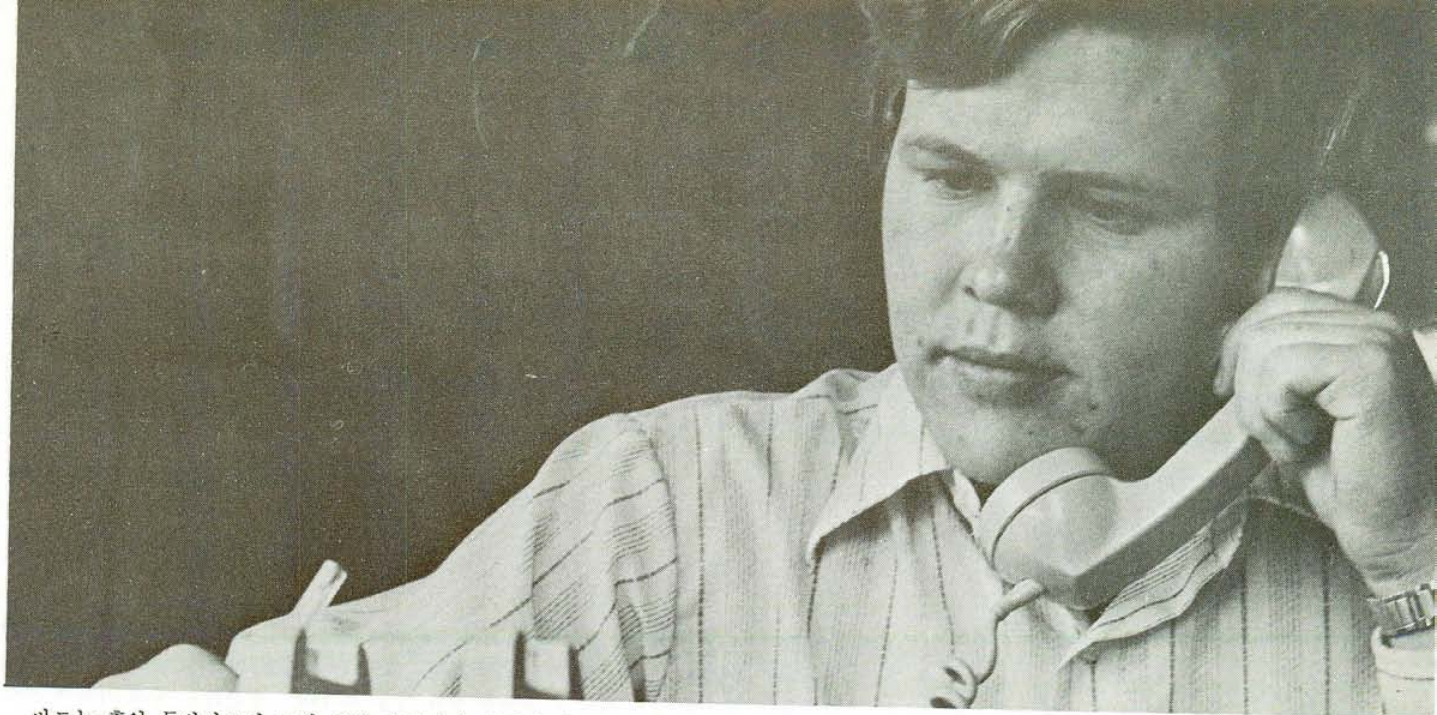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일어섰다. 어깨가 더이상 께베감으로 움츠러 있지는 않았다. 똑바로 자랑스럽게 걸어나갔다. 데이비드도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드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날인 것이다. 몇몇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랑스럽게 건도록 해드려야 한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앞자리를 향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연설을 중단한 채로 우리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때의 침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의자 앞에 이르자 데이비드는 할아버지를 먼저 안쪽으로 앉게 하고는 자기도 그 옆에 앉았다. 어머니를 보고는 웃었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단위를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분명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과 함께.

그뿐이 아니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어드세 제니가 옆에 와 웃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데이비드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아버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내아들아”하고 불렀다. 그 이상 무슨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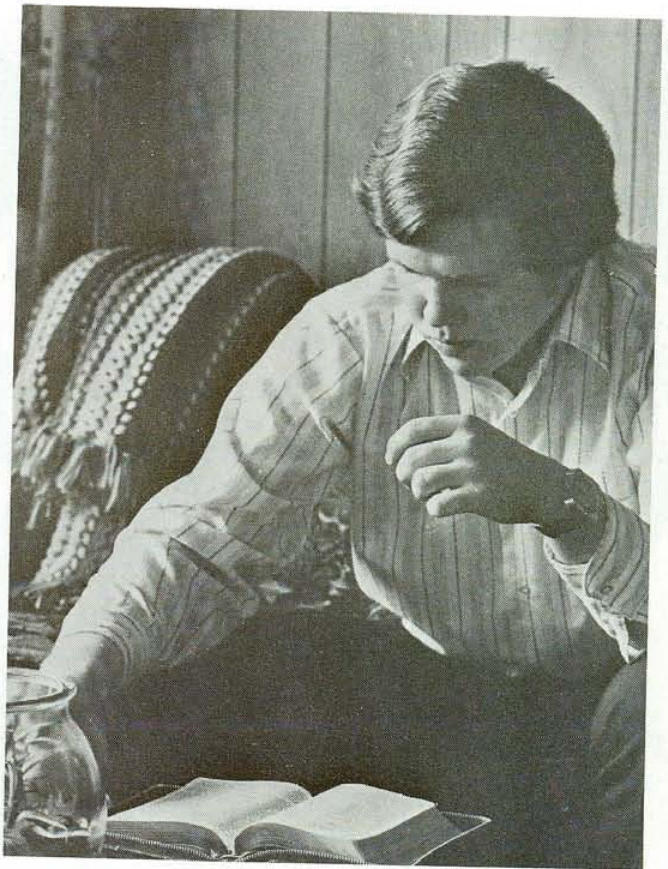
바트는 후임 동반자로서 그의 선임 동반자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다. 선임 동반자 중에는 무척 바쁜 사람이 많다. 그들은 후임 동반자가 약속에 관한 것을 확인해 줄 때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바트의 동반자는 약속을 한번밖에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바트가 연락을 했을 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몇분 늦게 되었다.

매달 첫 수요일

엘튼 린쇼튼 사진

바트 헤일즈에게 있어서 가정 복음 교사로의 부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바트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할 책임은 멜기세덱 신권, 제사 및 교사의 직을 받아들일 때 함께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다음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봉사의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



바트와 동반자는 매달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전한다. 바트는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기도한다.

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신권 소유자는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처치 뉴스, 1969년 4월 19일, 16 페이지)

바트는 부름에 충실해 왔고, 따라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트와 동반자의 가정 복음 교육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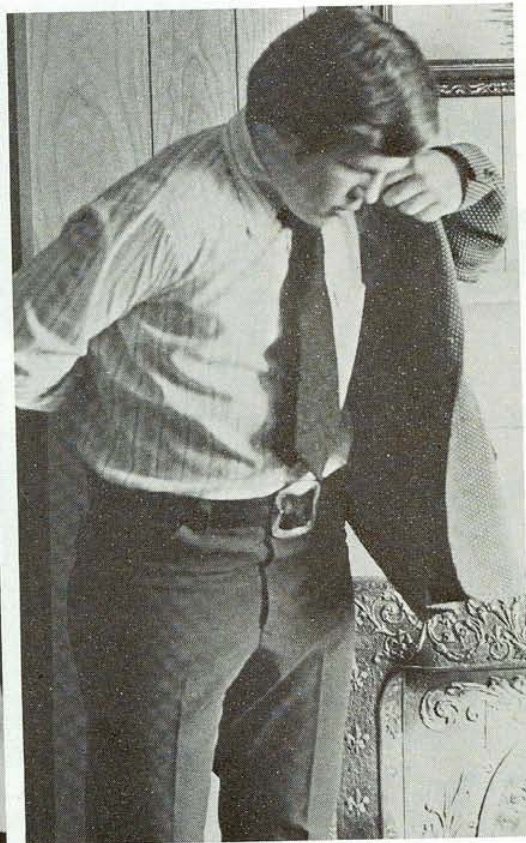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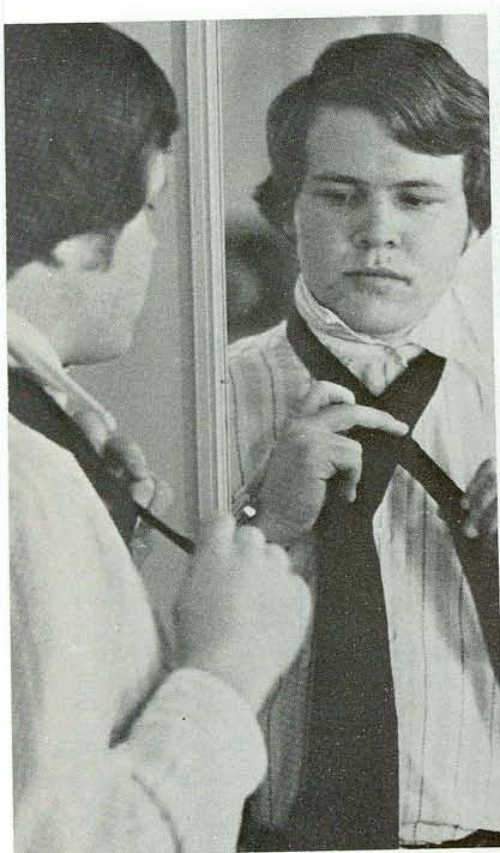
바트는 가정 복음 교육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가족이 모두 질병으로 고생이나 하지 않나, 생활에 곤란을 겪지나 않나를 살펴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예언자요 대관장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바트는 태너 부대관장님과 함께 기어리 가족도 방문한다. 태너 부대관장님과의 가정 복음 교육은 정말로 발전의 과정이었다. 바트는 성도의 가정을 찾아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위대한 방문 계획의 참 뜻을 잊지 않을 것이다. 방문하는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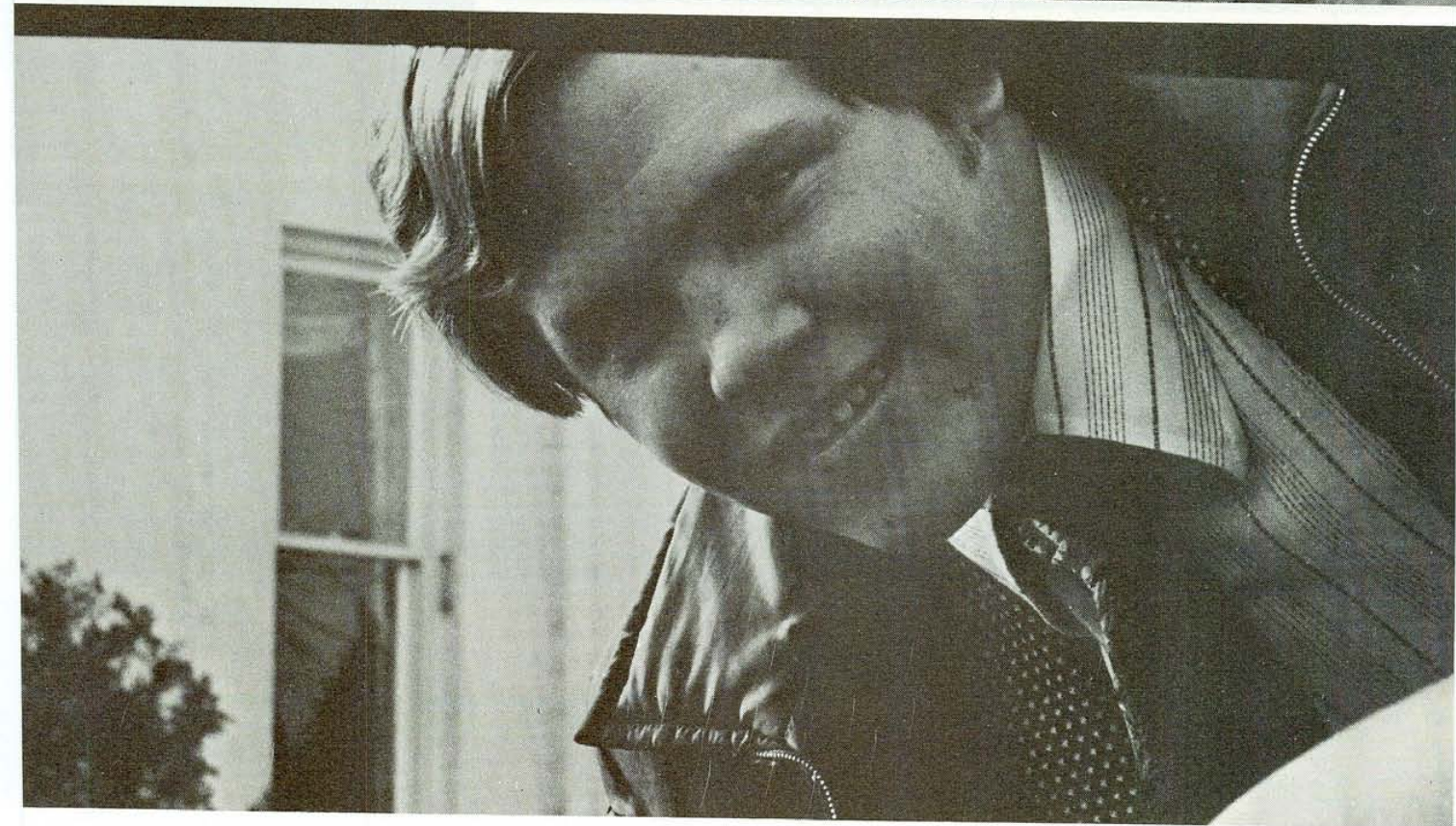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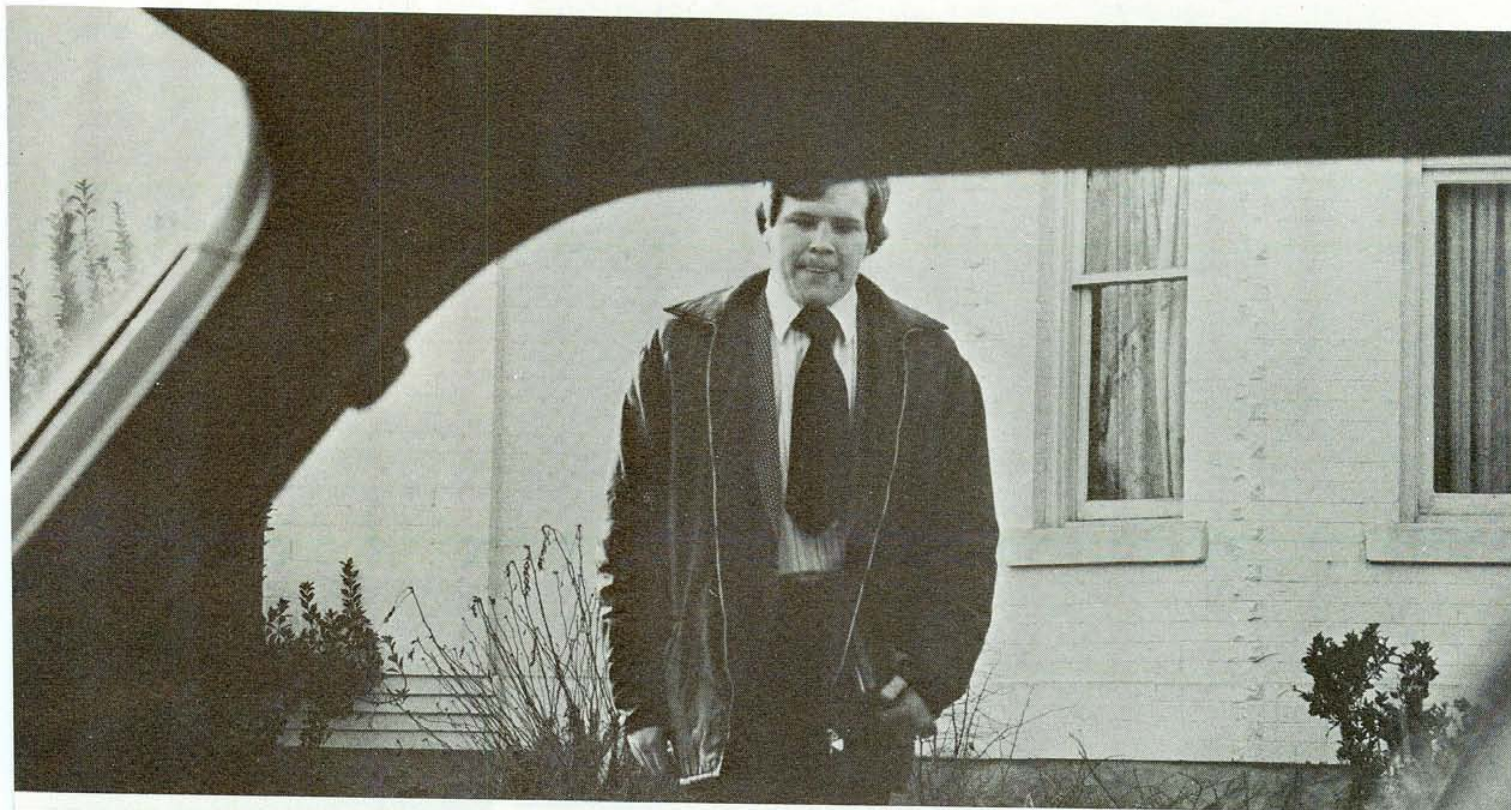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84 : 36-38)



바트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의 복장에 신경을 쓴다. 넥타이를 매고 걸옷을 입는 것이 방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방문을 받는 가족에게 자신이 가정 복음 교육을 특별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트의 선임 동반자는 근처에 살고 있어서 바로 집 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온다. 오늘 방문할 두 집은 조금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한다. 방문을 받는 가정에서도 미리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매달 첫째 수요일 저녁에 바트와 동반자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는 방법은 방문을 받는 가정이나 방문한 교사에게 아주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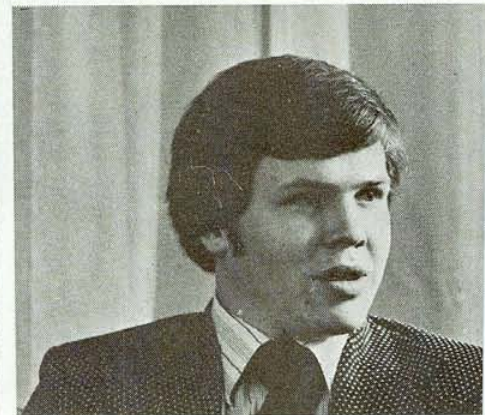


바트는 선임 동반자를 따뜻하게 맞는다. 그분이 아주 바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그분을 잘 알 것이다. 바트의 동반자는 대관장단의 엔 엘돈 배너 부대관장님이다. 배너 부대관장님이 가정 복음 교육을 다니실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가정 복음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트는 생각하고 있다.

바트는 배너 부대관장님과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된 것은 큰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이라고 말했다. 바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트는 배너 부대관장님과 스노우 가족을 먼저 방문한다. 바트는 공과를 가르치는 중에 같은 와드에 다니던 젊은이의 뜻하지 않는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례식 때에 감독이 하신 말씀 즉 이 젊은이야말로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트는 우리 모두가 죽음이 언제 우리를 엄습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배너 부대관장님은 바트에게 와드내의 젊은이들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끔 물으신다. 참으로 와드의 젊은이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제이 엠 헤스롭

깃 젤이 젊고 멋있는 아문센을 사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녀는 두 사람이 신전에 가게 되기까지는 결코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깃젤은 여덟 살때부터 교회 회원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복음의 원리, 특히 신전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교회 회원인 남자하고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깃젤의 설명을 들어 보자. “저는 아문센을 대학에서 만났어요. 춤을 추자고 하더니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아문센이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아주 좋아 했습니다. 일년 동안이나 데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만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문센은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교회에도 가 보았지만 아무래도 교회는 아



문센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문센의 보충 설명이다. “잇젤은 신권을 가진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잇젤을 사랑하였고, 따라서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먼저 결혼을 한 다음에 종교 문제는 차차히 해결하자고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년 동안 데이트를 한 다음 저는 학교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 갔습니다. 휴일이나 만날 수 있었으므로 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잇젤은 신전 결혼을 한다는 보장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철 방학 기간의 데이트로 4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아문센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였지만 신전 결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어떤 날, 저는 이제 끝장을 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해 여름내내 한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영국 신

전엘 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았죠. 저는 기도책에 아문센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문센도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해 보았지만 모두 적당치가 않았다.

“잇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걸어 보았더니 마약 영국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데이트를 세 번인가 하고 나니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르자 저하고 비슷한 연령의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모임은 몇시에 시작하죠?’라고 묻자 그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시작하는데 같이 가시죠.’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시작했지만 잇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말씀대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에 쫓겼다는 결심을 굳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잇젤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저는 아문센이 회원이 되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항공의 여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휴일을 잡아 영국을 찾았습니다. 아문센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 내일 침례 받아.’라는 아문센의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꿈의 실현이었다.

잇젤과 아문센은 연애 5년만에 결혼하게 되었다. 잇젤은 누구든 자기를 신전에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문센은 군에 입대하였다. 교회 회원이 되고 1년이 지난 뒤에 휴가를 얻어 인봉의식을 마칠 수가 있었다.

“우리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너무도 가까이 지낸 관계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슬로에 보금자리를 꾸몄다. 아문센은 양복지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1년 후에는 자기 사업에 손을 대었다.

아문센 가족에는 세 자녀가 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가족 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의 고스타 버링 선교부장은 아문센을 오슬로 제2지부의 지부장으로 불렀다. 아문센은 주저하지 않고 이 책임을 받아들였다.

“저는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분명히 지도자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 잘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의논하는 중에 신전에서 주님과 나눈 성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신전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서로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문센 자매가 된 잇젤은 말한다. “그래요.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주하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장사



봄이었다. 유타주 캐넌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산이 따사로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성너머 몇 십리 길이나 되는 인디언 부락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어 무척이나 좋아했다. 집에 있으면 채소밭의 잡초나 뽑아야 할 터인데 푸르른 관솔 나무 사이로 조랑말을 타고 가는 기분이야 어땠으랴.

그들은 인디언에게 팔 말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들은 따뜻한 봄날 아침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별로 말이 없었다.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이들이 부락에 이르자 프랭크라는 나바호 추장 노인이 맞아 주었다. 일전에 좋은 말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가지고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랭크 추장은 아이들이 조랑말에서 내리도록 도와 주고는 그들이 데리고 온 말을 잠깐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담요를 몇 장 가져 오게 하였다.

색이랑 모양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열 살 난 제이콥은 동생 월터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손해나는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러 주었다. 그들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제이콥은 추장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말은 좋기 때문에 이 물건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늙은 인디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 가죽으로 만든 옷 수 벌과 담요를 더 가지고 나왔다. 아이들은 인디언의 후한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옷과 담요를 말아 조

랑말 위에 얹고는 홀등한 장사 솜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집을 향하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조랑말 등에 실린 짐을 내리면서 의아한 듯 눈이 둥그레지셨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옷과 담요를 자세히 보시더니 전과 마찬가지로 두 뭉치로 만드셨다. 아버지가 무어라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만 하셨다. 그 일을 마치시고는 한 쪽에 놓아둔 담요를 말 위에 얹고는 다시 갖다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제이콥과 월터에게는 벌써 날이 어두어지는 것 같았다. 또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그러나 프랭크 추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아 주었다. 추장은 주름진 팔로 담요를 받아 내리면서 “난 너희들이 다시 올 줄 알았단다. 너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갖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알지.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단다. 사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는 분이란다.”

별안간 날씨가 화창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받고 있는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주 : 제이콥 햄블린 형제(1819-1886)는 1854년 유타 남부에 인디언 선교부를 설립하라는 임명을 받았다. 그는 1876년 12월 15일 브리검 영에 의하여 레이먼인을 위한 특별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는 인디언들이 유타 남부, 아리조나, 뉴멕시코에 정착하도록 협조하였다.

어린 나바호 소년이 희고 부드러운 양 가죽 침대에서 자고 있는 오두막집은 아직도 킁킁하였다. 억센 손이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더니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일어나거라. 해가 뜨기 전에 가야지” 키는 졸린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 보았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른을 불손하게 대할 수도 없었다.

아무 소리없이 재빨리 일어나 두꺼운 무명 바지를 입고는 가벼운 털 세타를 입었다. 육중한 나무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언제나 주시던 막대기를 주셨다.

키는 저멀리 떨어져 있는 산의 희미한 능선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의 어두움을 응시하였다.

무척이나 멀게 생각되었다.

인디안 소년은 문을 세차게 닫고 오두막집을 쓴 살갓이 빠져 나가 양 우리를 지나 메마른 땅을 달려 나갔다.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작은 나무를 뛰어 넘어가고 있었다. 속도를 내자 가슴은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손에 막대기를 움켜 쥐고 질주하는 키의 탐스럽고 검은 머리카락이 신선한 아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산에 가까이 이르자 해는 그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키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있는 힘을 다하여 더 빨리 뛰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아직도 갈 길은 머니까! 힘차게 달리는 키의 다리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의 두 눈은 바로 앞에서 금빛 찬란한 해가 떠 올라 붉은 산 위로 치솟으며 하늘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키는 갖고 있던 막대기를 힘 자랑이라도 하듯 땅속 깊이 힘껏 내리 꽂았다. 그리고는 땅에 주저앉아 쉬기 시작하였다.

이른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붉은 바위를 쳐다 보고 있는 어린 나바호 소년의 귀에 할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말씀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해를 맞아야 해! 기진하여 더 땀 수 없을 때까지 달려 막대기를 대지에 꽂아야 한다. 다리는 하루 하루 더 강해져서 결국 바로 밑에 막대기를 꽂는 날이 오지. 그때야 어른이 되는 거란다.”

이 말씀에 따라 키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 날을 맞았고 사실 하루가 다르게 지평선에 조금씩 더 가까이 되었다.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키는 먼 곳을 바라 보면서 생각했다. ‘아무래도 산 밑에는 못갈 것 같애. 피곤해 죽겠는 걸. 노인네가 하는 말은 터무니가 없는 말이야.’

‘내일은 뛰는 척 하고는 양 우리 뒤에 숨어 있어 야지.’ 키는 느린 걸음으로 집을 향하였다.

할아버지 집 근처에 이르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언제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는 문에서 그를 기다려 주셨고 지붕 한 가운데에 있는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할아버지도 안 계셨고 굴뚝에 연기도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불도 피우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가 여덟 모 난 방을 살펴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겁이 났다.

매해 여름, 키는 외따로 떨어진 할아버지 댁에 와서 양을 돌보아 드리면서 자기 선조들의 생활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마음은 노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차 있었다.



해 맞이

폴린 헬퀴스트 지음/니나 그로버 그림

‘어딜 가셨지?’ 소년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 잡혔다. 별안간 통나무 벽 밖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다. 키는 재빨리 뛰어 나가 뒷마당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뿔 나무 더미 옆에 쓰러져 무척이나 아픈 표정을 하고 누워 계셨다.

“뿔 나무를 가지러 왔다가 그만 통나무가 다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선 할아버지 다리위의 통나무를 치워야 했다. 통나무를 힘껏 잡아다녀 보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키는 울었다. 할아버지는 키의 겁에 질린 두 눈을 쳐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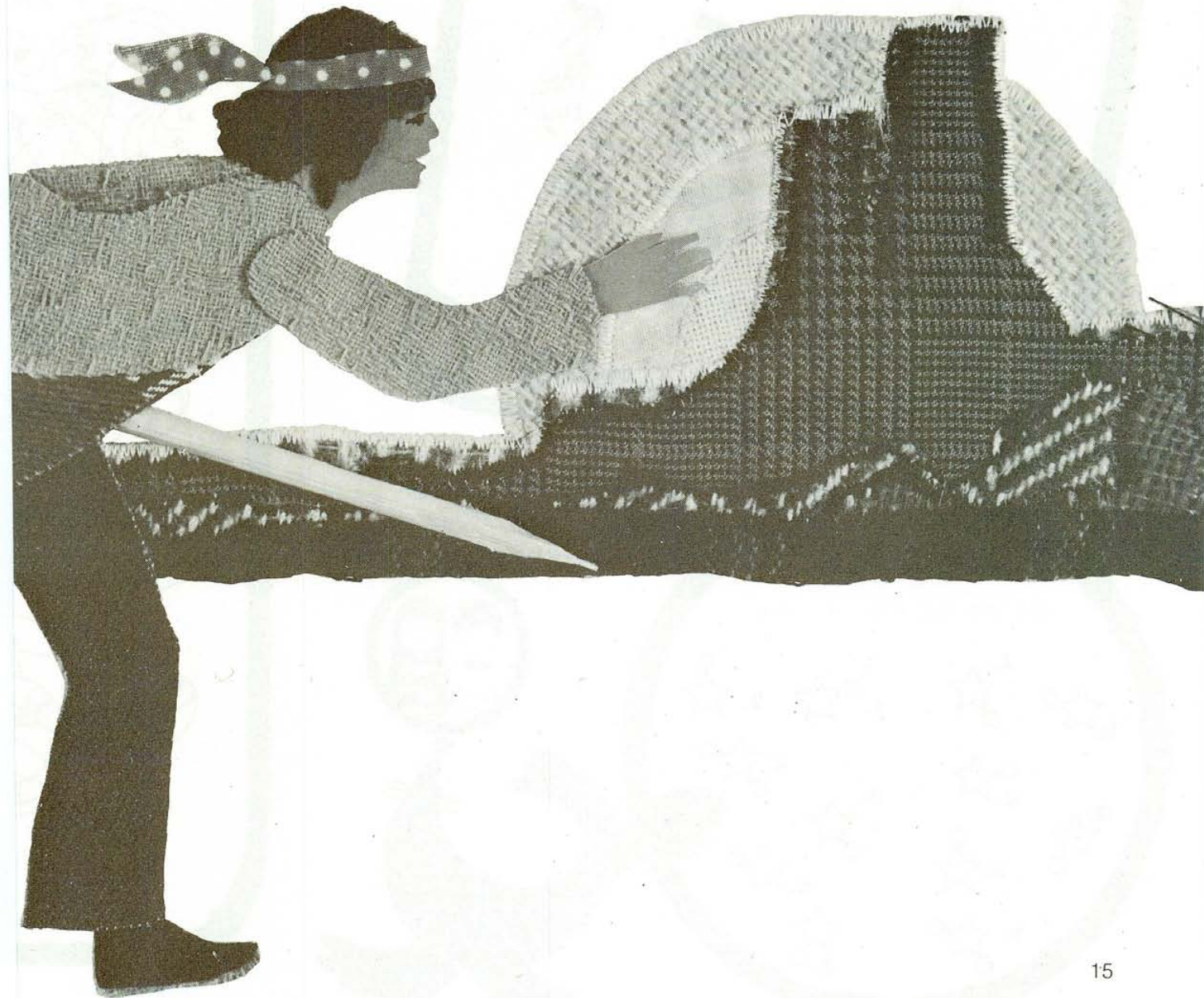
“팔로는 아직 힘들지. 그러나 너의 다리는 강해. 너 빨리 베게이 삼촌한테 가서 알려라. 그럼 된다.”

키는 어느 때 보다는도 빨리 달렸다. 힘차게 달리는 다리에 새로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실까 싶어 힘차게 달렸다. 토끼풀이랑 여기저기 흩어진 관솔 나무를 뛰어 넘어 달렸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전처럼 피곤한 줄은 몰랐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키는 베게이 삼촌 집에 닿았다. 아저씨 몇이 할아버지 집을 향해 출발하였다.

키는 아름다운 산을 쳐다보며 그 동안 산을 향하여 가는 길에 쫓은 많은 막대기에 생각이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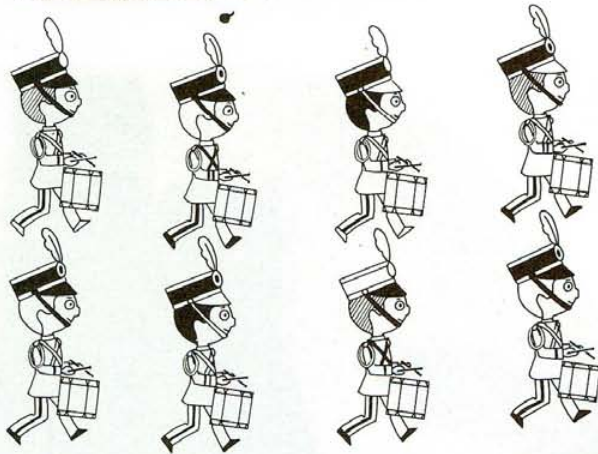
“할아버지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일은 신나게 해를 맞으러 가야 되겠다.” 키는 다짐하였다.



심심풀

복치는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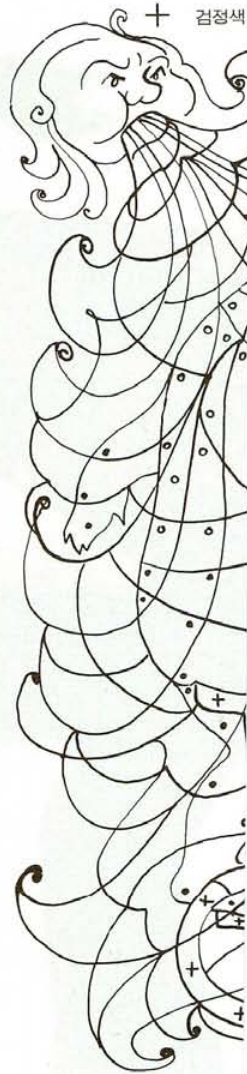
로버타 엘 페어올
둘이 똑같은 복치는 소년을 찾아 보세요.



색칠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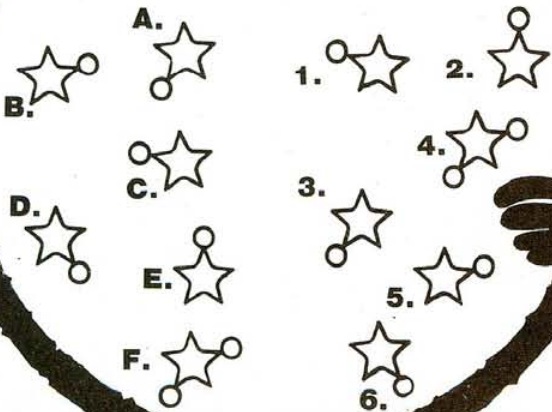
부호에 지시된 대로
누구의 모자가 날라가
있지요.

+ 검정색



별 짝 찾기

리차드 라타
양쪽 별중 같은 짝을 찾아 보세요.



테시

을 칠해 보면 행신중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간색 ● 고통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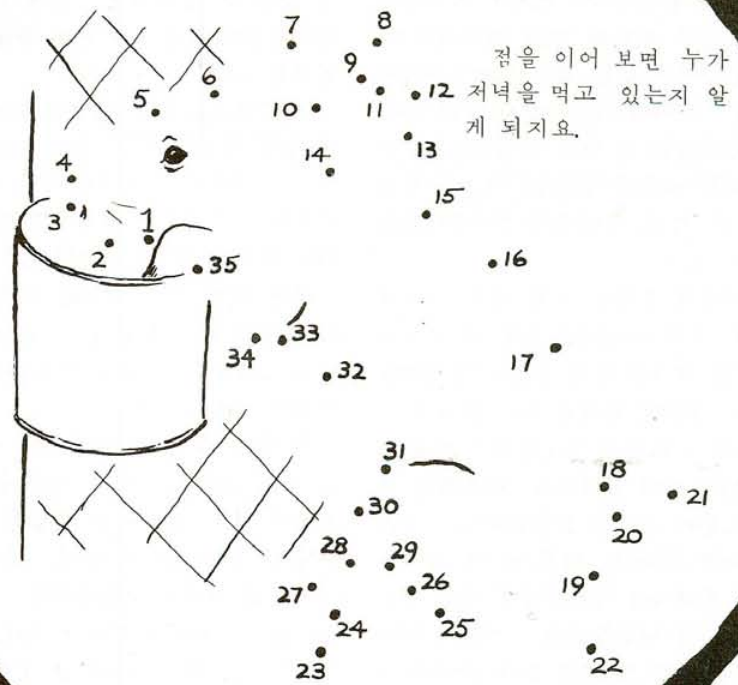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URE

네바 슬츠

물개, 고래, 거문고, 조개껍질,
땅콩, 사진기, 천막, 팽귁, 깃, 박쥐,
낙지, 이글루(어름!)

점 잇기

캐를 코너



점을 이어 보면 누가
저녁을 먹고 있는지 알
게 되지요.

친구가 친구에게



조린 메리디스가 휴 비 브라운 장로(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와 자신의 손자 몇 사람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라운 장로님의 손자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이 모두 할아버지에 대하여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아홉 살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큰 의자에 앉아 계셨죠. 저는 할아버지 뒤에 서서 그분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겨 드렸어요. 가운데에다가 가름자를 타서는 이리 저리 뒤로 빗겨 보고는 했습니다. 한 쪽에 가름자를 타서는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앞으로 빗겨 얼굴이 안 보이게도 해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마침내 저는 팔이 아파 더 빗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언니와 함께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서 들려 주시는 이야기는 긴 탐험 이야기였죠. 마치 과학 소설과 같았습니다. 언제나 언니와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커다란 지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니 값비싼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닙니까? 먹을 것도 많이 쌓여 있었지요. 바닥에는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배를 한 척 찾아가지 않고 올라타니 뜨거움없이 강을 따라 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는 으레 큰 거인 하나 둘이나 아니면 신나는 괴물이 나오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괴물과 싸우게 마련

인데 언제나 승리는 우리 것이었지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별로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등잔 불을 벗삼아 책을 즐겨 읽으셨습니다. 니파이 선지자를 매우 좋아하셨지요. 그분은 니파이처럼 되고 싶다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 뵙고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려 주신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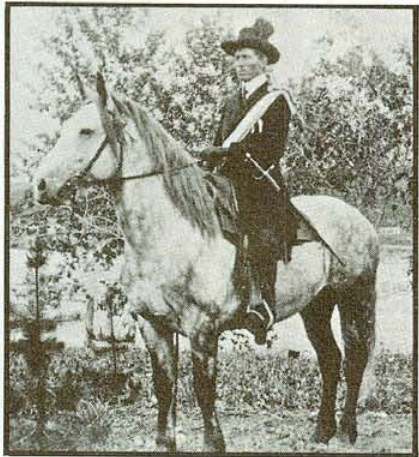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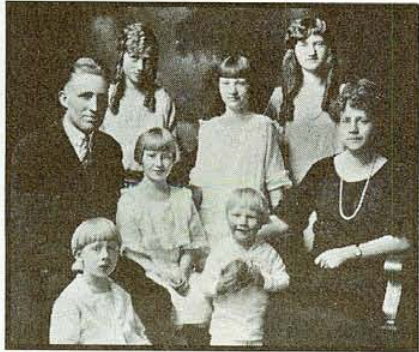
“어렸을 때 형 버드하고는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형은 언제나 나를 못살게 굴고 놀리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족제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니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파 내려 가려고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구멍에 손을 넣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만 믿고 손을 구

멍 속 깊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족제비가 어쩌나 심하게 물었는지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다음부터는 형이 뒤를 하라고 할 때에는 보다 신경을 쓰게 되었지요.

“형은 언제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나를 괴롭혔지요. 그렇지만 한번은 단단히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곡간 지하실에서 잤습니다. 형이 얼마 전에 유령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사촌 동생과 짜고 형을 끌려 주기로 했습니다. 낡은 친을 뒤집어 쓰고 지하실에 있다가 형이 오면 놀라게 해 주자는 작전이었었습니다. 나는 밖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었습니다. 마침내 형은 곡간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지하실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촌 동생을 보자 기겁을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뛰쳐 나왔습니다. 형이 지하실에서 다시 잠을 자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라운 장로님이 들려 주신 경험 중에서 말에 대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기병대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있어서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원하던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돈도 상당히 지불했죠. 나는 즉시 말을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스팀보트, 나는 말을 이렇게 불렀죠. 스팀보트는 캐나다 기병대에서 제일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제일 훈련이 잘 된 말이 되었습니다. 앉게도, 기게도, 오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카드스톤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 2년 동안 스팀보트를 즐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니펙 부대의 워커 대령이 우리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 임무는 장군에게 드릴 말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다가 대뜸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기가 막히다면서?’

“‘물론이지’

“한번 타 보자고 하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잠깐 타 보고 와서 말에서 내리면서 ‘이 말 얼마면 팔겠나?’

농담을 하는가 싶어 별 생각없이 대답했습니다. ‘500불이면 팔지.’ 5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샀네!’

“나는 당황하였습니다. ‘농담이야. 이 말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인데.’

“워커 대령은 똑바로 서서 말했습

니다.

“‘자네가 부른 값을 내가 주겠다니 흥정은 끝난 걸세.’

“이렇게 해서 말을 잃고는 한 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후에 본부가 있는 잉글랜드를 방문, 마사를 검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검열을 하다가 오랜 친구였던 스팀보트를 만났습니다. ‘스팀보트’ 하고 소리쳐 불렀더니

“말은 총에라도 맞은듯 필적 뛰었습니다. 나는 마굿간 안으로 들어가 목을 껴안고는 울었습니다. 옛 친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도는 기도와 간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에 그의 감정이 잘 요약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면 어머니를 부르고는 하였습니다. 어머니 방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열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후에 영국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아 떠날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불러도 엄마는 대답을 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항상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종종 불러 봅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아름다운 백발의 단정한 노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일의 신전 퀴즈

빅키 에이치 버즈

신전이란 말은 라틴어의 Templum에서 나온 것으로 주님의 집을 뜻한다. 말일성도는 신전이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장소로 알기 때문에 이의 건립을 강조해 왔다. 다음 글을 잘 읽어 보면 신전 이름과 관계가 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빈 칸에 신전 이름을 적어 보기로 하자.

1. 우리의 개척자들이 건립한 신전이다. 1893년에 헌납된 이 신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른 신전 3개가 완성되었다. _____ 신전.

2.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가 열다섯의 나이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찾은 섬이다. 1915년 교회의 대관장으로 이 신전의 부지를 헌납하기 위하여 다시 찾으셨다. _____ 신전.

3. 1887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그곳은 그룹의 대장이었던 찰스 오라 카드의 이름을 따서 카드스톤이라 불렀다. 1913년 신전 부지가 헌납되었고, 1923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이 신전을 헌납하셨다. _____ 신전.

4.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미국 서부로 이동하였다. 이 신전이 위치한 지역에는 레이맨인 회원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이 많이 살고 있다. 1927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이 신전을 헌납하셨다. _____ 신전.

5. 구라파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스위스 신전이다. 따라서 구라파 전역의 많은 회원이 1955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일 2회에 걸쳐 열린 헌납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 신전의 헌납 기도문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드렸다. _____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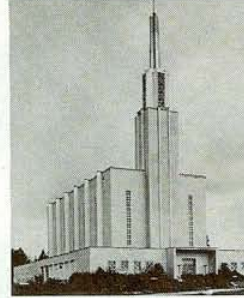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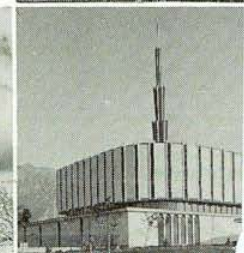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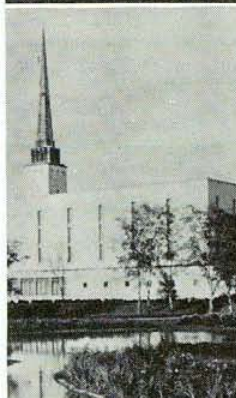
6. 폴리네시아 성도가 하와이 신전에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했다. 1954년 남태평양 지역에 신전을 건립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958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이 신전을 헌납하셨다. _____ 신전.

7. 1955년 스위스 신전을 헌납하고 귀국하는 길에 맥케이 대관장님은 뉴캐플에 들려 신전 기공식을 주관하셨다. 이 신전은 3년 후에 헌납되었다. _____ 신전.

8. 최근 솔트레이크시티 근처에서 신전 2개가 헌납되었다.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가 건립되었다. 북쪽에 있는 신전 _____ 신전. 남쪽에 있는 신전 _____ 신전.

9. 미국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 완성된 신전이다. _____ 신전.

10. 이밖에도 현재 교회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신전이 6개나 더 있다. _____ 신전. _____ 신전. _____ 신전. _____ 신전. _____ 신전. _____ 신전.



나는 산을 오르고 있는가?

내 자신이 실제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데렉 디슨

“그 령기 때문에”

지부장은 말하였다. “우리는 형제님을 지부 선교 책임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회원과 신교사를 잘 연결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회원이 열성을 갖도록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님은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낯선 사람에게 시간도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도 걱정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어떻게 신경을 쓸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부장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경험이지요. 그러나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첫째로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다음 주일 아침 신권회 모임에서 선교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발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열의를 갖도록 해 주고 이웃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는 지침을 몇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가슴은 소리내어 뛰기만 하였다. 무서움으로 마음 둘 바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지부장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는 흐르는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는 한 밤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무서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렇지만 천장은 무쇠인 양 나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 공연히 온 몸이 아파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바라는 바에 대한 응답은 쉽게 왔으니,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다.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 연필을 잡아 종이에 적었다. 다 적지는 못하였다. 안식일이 가까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과 친구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정도는 이

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권회 모임에서 형제들에게, 태연한 태도로,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1.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2. 자신이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3. 도와 주어야 한다.
4. 용기가 있어야 한다.
5. 성공했을 때 이를 알아 차려야 한다.
6. 영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조용하게 일곱 번째 원리를 다짐하였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주로 내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실마리가 풀렸던 것이다. 막 입사한 미혼 청년에게 건물 안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용기를 내어 시작하였다.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물론 교회 회원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나를 유심히 쳐다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왜 그러시죠? 혹시 물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군요. 직접 사귀어 본 적은 없었지만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를 중계 방송을 통해 시청한 적은 있었지요. 무척 지루했지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말씀하신 분 중에 머리가 흰 노인이 있었는데, 전 그런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떤 물문경을 찾으시는지요?” 나는 물었다.



나는 옆에 앉아 가는 사람을 한 번도 쳐다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예언자의 영이 인간의 마음을 열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두 번째 경험은 쓴 것이었으나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만원 기차에 몸을 실고 귀가하고 있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읽고 있었다. 옆에는 물건을 한 아름 안은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책에 몰두한 나머지 옆에 앉아 가는 사람을 한 번도 쳐다 보지 않았다. 차가 집 근처에 와서 책을 덮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물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었나요?”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물었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책에서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요셉 스미스란 분 말이에요.”

“네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의 종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차가 역에 도착하여 나는 내렸다. 부인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여행하였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의 눈은 창가에 앉아 나를 쳐다 보는 부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얼굴에는 무엇인가 더 원하는 빛이 역력했다. 나는 그때 왜 그 부인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지 못했는가 후회가 막심하였다. 그 후에 기차를 타면 부인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나는 경험을 통하여 서서히 발전하였다. 고조되는 때

가 있는가 하면 실망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1969년 8월 어느 날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는 도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나는 보통 점심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낸다. 밥을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책을 읽고는 한다. 그런데 이날은 공연히 불안했다. 실망도 컸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기분도 그렇고 하여 소화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점심을 빨리 해치우고는 부라이튼 거리를 걸으며 우울증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나는 상점 진열장을 들여다 보며 얼마를 걸어다녔다. 서점에 들어가 책도 뒤적거려 보았으나 마음은 가라앉지가 않았다. 계속해서 걸어다녔다.

전에 자주 들리던 중고책을 취급하는 단골 책방에 도착하였다. (최근 몇 달 동안 별로 신통한 책도 없어서 통 들리지를 않았다.)

책방으로 들어가 아래층 계단을 내려갔다. 별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을까 하고 책장위의 책을 쪽 훑어보고 있을 때에 구두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검은 색의 성직자 제복을 입은 목사 두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도 책장에서 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나 나나 서로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같이 온 친구를 향하여 말했다. “난 물론경을 한 권 사야 할텐데.”

내 귀는 번쩍 했다.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다른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정말 이해

못할 사람이로구먼. 사우 샘톤에 몰몬 교회 예배당이 생겼는데 아직 한번도 참석은 안 해 봤네. 프레드, 나 이만 가 봐야 되겠네. 배티를 한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내년에나 또 만나게 될까?”

“글쎄, 그렇게 되겠지?” 프레드라는 목사가 말했다. “잘 가게.” 다른 목사는 구두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책방을 나갔다. 프레드는 계속 책을 찾았다.

주님의 영이 마치 만져지기도 할 불처럼 마음 속에서 움직였다. “실패하겠습니다. 어떤 물문경을 찾으시는지요? 처음에 나온 것을 원하시나요?” 나는 그 목사라는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요. 아무거나 상관없지요.”

“네, 그러시다면 명함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문경을 한 켤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물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가슴 속에서 작은 음성이 말했다.

“그것 참 재미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물문경은 어떻게 찾으시는지요?”

“저는 에섹스에 있는 ‘자유 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종파에 대한 공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텔레비전에서 ‘브리검 영’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모두 감동하여 이번에는 몰몬에 대한 공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문경을 찾게 된 거죠.”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헤어졌다. 그 목사는 수백 키로 떨어진 곳에서 왔고 나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걸다가 부라이튼의 어느 중고 책방에서 물문경에 대

하여 토론을 하게 되다니!

나는 목사의 카드와 간단한 설명을 붙여 선교부로 보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주님의 영감에 대하여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만 만들어 주면 되었다. 실로 건너야 할 강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 복음을 토론한다는 생각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고 있는 감정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였다. 내 가슴은 극복하고자 말겠다는 결의로 가득하였다. 나는 이방인을 내가 들어온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부에서 헬로우인 파티를 갖던 날 저녁 내 딸 스잔은 쓰고 남은 두꺼운 판지와 벽지를 가지고 판을 만들어 저녁 내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대단한 성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기 위하여 언덕 밑에 위치한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도 몇 사람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머머리가 좀 벗겨지고 건장한 중년 남자였는데 매우 가까이 하기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왜 저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나는 왜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시도하지 못할까? 말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때에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붙였다. “실패하겠습니다. 혹시 판지로 만든 판을 살 사람이 없을까요?”

그는 머리를 들었다. 나를 자세히 쳐다 보면서 말했다. “뭐라고요?”

“저, 혹시 판지로 만든 판을 살 사람이 없을까요? 어제 저녁 우리 교회에서 헬로우인 파티를 했는데 제 딸 녀석이 판에 들어가는 역할을 했지 뭐니까? 이제는 쓸데도 없는데 부피만 차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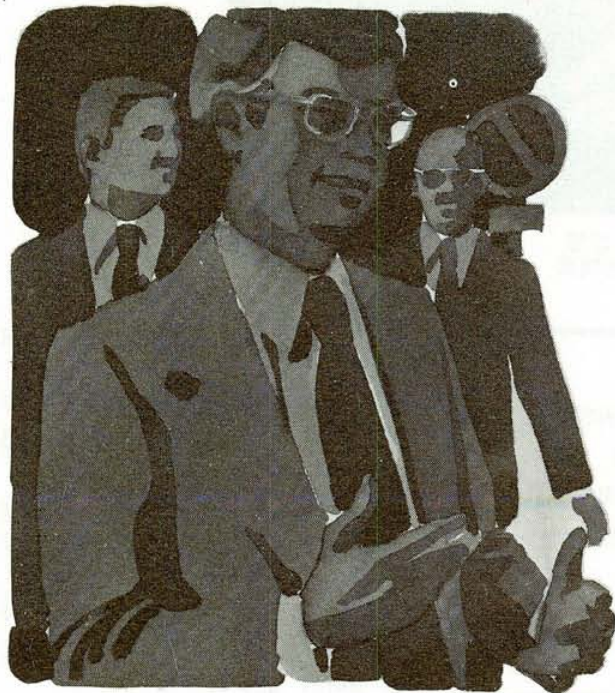
사실 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물기를 기다렸으나 묻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넵은 유모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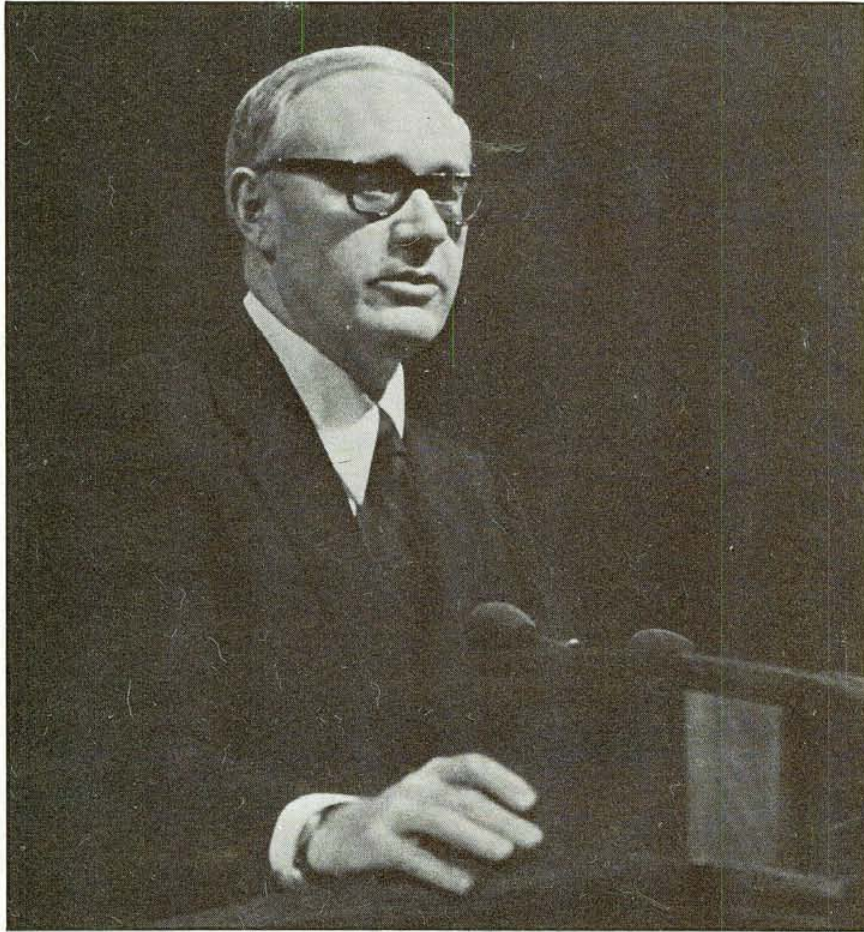
우리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는 기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했다. 시내를 향하여 걸기를 시작하자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대담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아주 미쳤거나 아니면 속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일텐데 대체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테렉 덕슨은 영국 런던 남선교부 소속 부라이튼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충실한 일꾼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
킴볼 대관장님은 교회 회원인 우
리아게 하나님께 다른 자녀를 인도하
라는 책임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발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첫
째는 교회의 모든 회원은 각자 자기
의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이 모범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
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희생한
회원에게 드리는 글.**

**목표 : 우리는 언제 우리의 몫
을 다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계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며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
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
게 하라.”(교리와 성약 38 : 40-41)

교회내의 모든 가정은 가정 대 가
정 단위로 비회원 가정과 우정 증진
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능력을 갖춘 젊은이는 모두 복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다시 보면,

“그런고로 힘을 다하여 충실한 일꾼을 나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 마지막으로 나무 가지기를 치게 하라.

“저들이 회개하여 나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여 거룩한 자가 되면 나는 심판하는 손길을 멈추리다.

“그런고로 나아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왔도다 하며, 호산나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외치라.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내가 올 때를 위하여 내 앞에 있는 길을 준비하라.

“이는 때가 가까웠음이라. 그 누구도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리다.”(교리와 성약 39:17-21)

본인은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를 방문하는 길에 그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진강하게 선교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어느 날 오후에 사모아 태생의 선교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장로님, 보여 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우리는 선교부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언덕위에 종려 나무와 열대 식물로 휩싸여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순간 우리가 옛 묘지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묘지 중앙에는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었습니다. 피터스 선교부장 부부는 이곳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몇 사람 묻혀 있는 곳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묘는 8개나 되었습니다.

나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묘 여덟 중에서 빛은 2살 미만의 어린 아이였고 하나는 21살 된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모아의 선교 사업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 것인가?

그후 이틀 동안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선교부의 역사를 공부하여 사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덟에 대하여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다음 사항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는 갓 결혼한 부부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게 보통이었고 이들 중 사모아로 발령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묘지에 처음으로 묻힌 사람은 메릴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지 석달 만에 병에 걸려 조산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죽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리 자매(선교부장 부인)를 침대 곁으로 불러 그 동안 병 간호를 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자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한 다음 남편에게 작별의 키스를 남기고는 가고 말았다. 어머니와 아기는 관 하나에 같이 매장되었다.” 메릴 형제는 선교사의 임무를 마치고 아내와 아기의 유해를 갖고 귀국하여 유타에 매장했습니다.

토마스 에이치 힐튼 장로 부부는 사모아에서 선교사로 봉직하는 동안 1891년부터 1894년 사이에 아이 셋을 잃었습니다. 제넷은 1년을 채 못 살았고, 에벳은 7일을 살았고, 해롤드는 1년 반을 살았습니다.

해롤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일 일요일, 그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다. ...그후 이들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14일 아침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1894년 3월 17일 그가 죽기까지 사랑의 손길을 다해 회복시켜 보려 하였으나 급격히 악화되지만 했다.

“아 이 사실을 모두들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가 또 아이를 잃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것도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친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토마스 해롤드 힐튼은 1년 6개월 된 아이였는데 선교사는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모아 사람의 귀여움을 받았다. 다시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하여 깊은 동정이 가며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빈다.”

29세의 나이로 당시 사모아 선교부

장으로 일하던 랜섬 스티븐스 형제가 티푸스열에다 심장병까지 병발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894년 4월 2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미망인 애니 디 스티븐스 자매는 5월 23일 기선을 타고 집을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6월 10일 일요일 옥든에 도착,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프랭크린 디 리처드 장로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6월 1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관장단과 접견을 가진 다음 셉피트군, 페어뷰에 있는 집에 6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자매는 아파서 잠자리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간단히 인사를 끝내야 했다. 집에 도착하여 5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다.” 자매는 임신 초기에 갖은 시련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1900년 3월 2일 금요일의 일을 다루고 있다. “아피아의 요양소에서 스트타포드 박사는 귀여운 로이 로버트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어린 환자는 매일 기름 축복을 받고 좀 나아지는 듯 했었다. 부모(이티 로버트 장로 부부)는 어린 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월 3일, 토요일, “귀여운 로이가 아침에 아피아의 요양소에서 죽어 선교 역사상 또 하나의 슬픈 날이 되었다.” 묘비에는 “귀여운 로이 쉬고 있음.”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윌리엄 에이 무리와 신부 아멜리아 무리에 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리조나주 그레함군 대처에서 부름을 받아 1894년 11월에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마악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다 그렇듯이 희망과 열망에 가득차 있었을 것입니다. 무디 자매는 1895년 5월 3일 8파운드의 딸을 분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모는 3주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딸 헤이즐 무디는 아버지가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지역 성도가 많아 1년 후 미국으로 떠나는 기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배에는 귀환하는 선교사 4명과 “무디 장로의 1살 먹은 딸 헤이즐은 시온의 친척에게 가기 위하여”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모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기 위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그중 많은 대가를 어린 아이들이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모아의 묘지의 그것과 비슷한 묘지가 세계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선교 사업의 시작에 따랐던 시련과 고통을 묵묵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시련은 과거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아에 있는 선교사들은 모두 건강하였습

니다. 두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가 보건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회원의 건강 표준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경우 선교사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희생은 대부분 시간과 돈의 희생입니다. 합당한 젊은이가 24개월에 걸쳐 주님의 일을 돕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었으나 주님은 우리의 적은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의 장군 한 분이 전방부대 검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열을 하면서 앞에 펼쳐진 들판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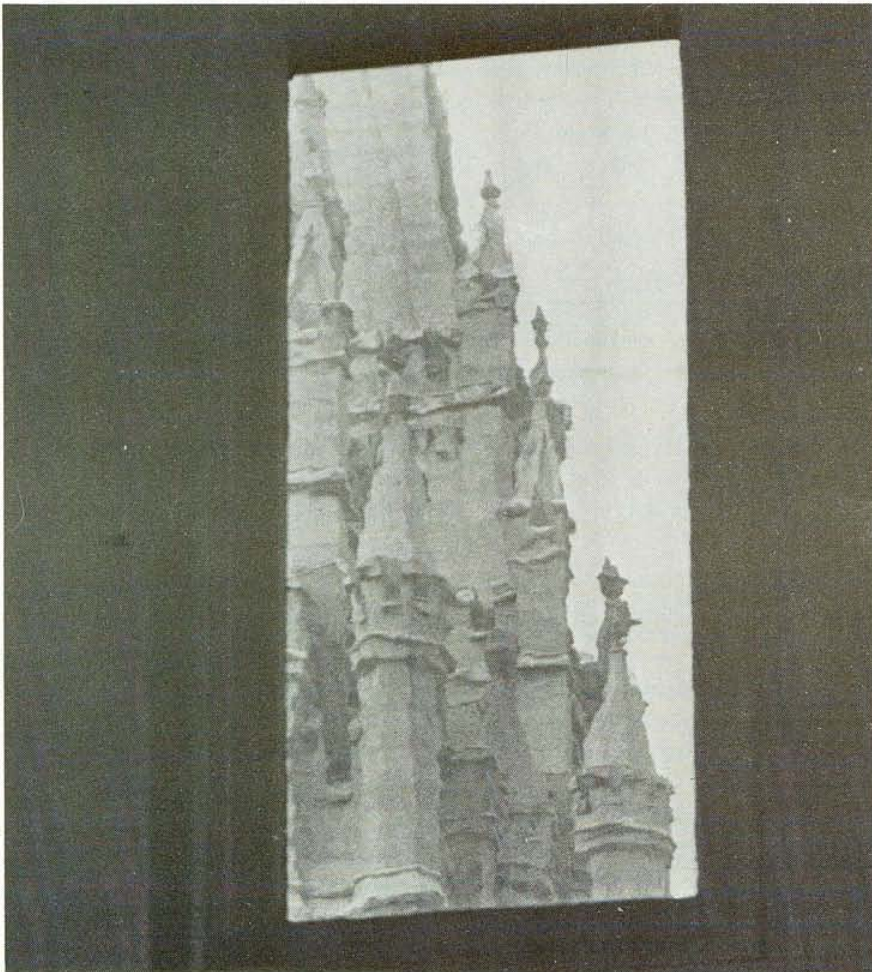
마침내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기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생명을 바친 친구들입니다. 저기서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나 아닐까 염려하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말일에 왕국의 복음을 퍼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 많습니다. 힐튼 가족, 로버트 가족, 스티븐스 가족, 무디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일하다가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 보면서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자신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헛되이 죽은 것이나 아닌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역만리 낯선 묘지에 어린 세 자녀를 묻어야 했던 그 젊은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자동차와 스테레오 전축을 못사고 학교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희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웃과 복음을 나눌 시간이 없다가 부끄럽다든가, 선교 사업을 하다가 아내를 잃고 주님께 대한 봉사를 마칠 때까지 어린 딸을 친척에게 맡겨야 했던 젊은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혹은 쑥스러워서 이웃과 복음을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십니까?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할 때가 아십니까? 왕국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때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지금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하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증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여러분은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예, 말하자면 방언의 은사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 등 믿을 만한 예를 들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경전에 언급되는 은사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이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교회사 2:607) 경전의 가르침과 말일의 계시를 바탕으로 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중단된 적이 없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2:26) 또한 “참다운 방언의 은사는 현재 교회내에 어느 때 보다 많이, 그 어느 영적인 은사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언어가 다른 나라로 복음을 가르치러 가는 선교사는 기도하고 충실할 때 누구나 이 은사를 받는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2:29)

이 사실을 간증하는 선교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보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복음의 이상 552페이지) 알론조 에이 핑클리 장로(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2:32-33), 그밖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의 생애에 나타난 훌륭한 은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의 한 분으로 십대 중반에 선교사를 마친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 은사를 받아서 하와이 사람들을 그 나라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나에 관한 한 내 나라 말이거나 남의 나라 말이거나 간에 사람들을 가르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방언의 은사가 되기에 충분하다.”(복음 교리 201페이지) 이에 덧붙여 현대에 아주 두드러진 증거 한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세계 32개국에서 경전과 기타 발간물이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다고는 보기 힘든 번역사들이 영어로 된 복음을 읽고 공부하여 이해한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옮겨 놓습니다. 그들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일에 능숙하게 됩니다. 이들 충실한 사람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의 예를 거울삼아 영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는 번역을 하려 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7-9)

선교사들은 언어 훈련원에서 외국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경전에서 이야기된 사실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0편 11절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저들에게 임하실 성신의 관리로써 성임되어 이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 1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1853년 7월 9일 교회 대관장단에서 발송된 공문에 보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를 분명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물몬경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언어 및 방언으로 똑같이 번역하여 인쇄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에게 많이 나타날 것이니 이 땅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나라, 왕국,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은사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까요? 만유가 회복되는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십이 사도회와 너희의 조언자와 인도자로 임명된 대관장단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 신권의 권능을 부여 받았느니라.”(교성 112 : 30)

하나님의 은사인 이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만유가 회복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마 17 : 11) 방언의 은사는 회복되어야 할 많은 것 중의 하나이며 교리와 성약에 주님께서 열거하신 은사에 분명히 이 은사도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성 26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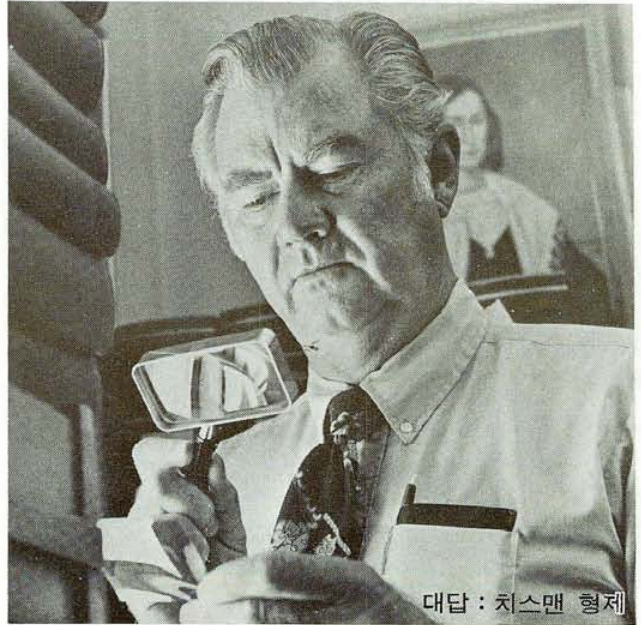
이 내용이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이야기처럼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번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주님께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228개 국가 및 영토에 3천여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37억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지구 상에 3백 3십만의 교회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회복하는 일은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사람을 찾아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 말 이외의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인 고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 이 카
교회 배부 및 번역 책임자

“고고학적인 사실로 물몬경을 증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 : 치스맨 형제

물몬경이 해당 백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기 위하여 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요 저자인 물몬, 모로나이, 니파이가 영적인 기록을 발췌하여 기록하면서 장구한 시간을 접하고 있는 기록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증거란 주로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 책의 역사를 따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독자는 영적인 경험을 맛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증을 얻는 공식은 그책 속에 들어 있는 모로나이서 10장 4-5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몬경에 대한 증거는 고고학을 공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로 물몬경을 공부할 때 간증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밖에도 이 책을 증거할 수 있는 외형적인 증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이 책에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 또는 모든 아메리카 인디안의 선조에 대한 기록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대륙에 건너 간 세 백성의 영적인 기록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하여 스페인 민족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미대륙의 문화는 찬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농업용 관개 시설을 갖추었으며, 놀랄 만한 세공술을 발휘하였으며, 체계를 갖춘 사회, 정치, 종교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메리카 인디안의 고대 선조의 문명은 그 웅장함이나 규모에 있어서 로마나 희랍의 그것에 필적할 만합니다. 물문경을 읽어 보면 신전이 많은 대도시나 금은 세공, 우수한 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를 증거할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이 기록은 가르침을 달리 하는 백성과 부단한 전쟁을 해야 했던 강력한 종교 통치 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는 초기 미국에서는 종교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놓았습니다. 물문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미대륙 방문 기록이 바로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고대 미국, 심지어는 현재 미대륙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갖고 있는 전설에는 그들의 선조를 찾아와 가르치고 축복하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수염달린 하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서로 내용이 비슷한 점에 우리는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도 고도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물문경은 고대에 만개했다가 시들어져 간 사회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 부르는 이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당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의 문명과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컬럼버스 이전 문명의 절정은 그리스도 시대와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있는 그대로의 인디안 문화를 연구해 보면 이 대륙에 존재하였던 그 위대한 문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계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도로, 즉 여행자를 신전, 궁전으로 나르던 고가 도로를 건설한 백성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문경에 나타난 바 이들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의 고고학적인 발견, 인디안의 전설과 재미있는 비교가 됩니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신은 구세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세계를 방문하여 가르치고 그들과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문경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인디안의 전설을 번역해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디안의 전설에는 홍수, 상자, 물을 가름, 기타 성경에 나오는 사실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스페인 사람들이 신세계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고고학, 인류학을 연구해 보면 물문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물문경을 증거하는 내용, 혹은 물문경 이후의 발달한 문명과 연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메소 및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건물

접착력이 강한 시멘트
코테즈의 설명에 나오는
탑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
는 9천 마일의 고가 도로
바퀴-바퀴 달린 장난감
이 발견되었음
구세계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구조의 무기

금, 은, 동을 포함한 야
금술

약, 시술의 이용
고도로 조직화된 신권

물 문 경

니파이이서 5 : 15
모사이야서 8 : 8

9 : 8

11 : 8

힐라 맨서 3 : 7, 9, 11

엘 마 서 48 : 1

50 : 4

니파이일서 25 : 11

힐라 맨서 14 : 24

니파이이서 12 : 7

엘 마 서 18 : 9

엘 마 서 23 : 13

25 : 14

에이름서 1 : 8

힐라 맨서 6 : 9

이 더 서 10 : 23

엘 마 서 46 : 40

엘 마 서 4 : 20

13 : 6

이밖에도 고대 미국의 수학, 천문학, 번제, 침례, 성찬, 할례, 불사불멸에 대한 신념 등과 같은 종교 의식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수준 높은 문명을 구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문경을 증거할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물문경에 언급되어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개념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연구가 크게 대두되고, 계속 새로운 발견 내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직 고고학적인 면에서 증명되지 못한 물문경의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물문경에 나타난 내용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틀리다고 규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많았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공부하면서 고대 미대륙에 관해 연구해 본 결과 물문경의 이야기를 실증해 주는 예를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폴 알 치스맨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부교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 남

“빵조각을 얻기 위해 단조롭고도 꾸준히 날아 오가는 것 대신 살기 위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탁월하고 지적으로 우수하며 재능있는 생물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와 질 수 있다.”

이 글은 미국의 타임지에 카바 스토리로 소개된 베스트 셀러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말일성도면 이 작품이 낯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이 넘는 독자들에게 감명을 준 이 작품의 혁신적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수많은 식자들이 이 새로운 생각에 매료되어 조나단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우리는 신권회, 주일학교, 신학 연구원에서 오래 전부터 이 사상을 배워왔습니다.

“하나의 갈매기는 자유의 제한 되지 않은 이상이라는 것. 대 갈매기의 이미지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이것은 조나단의 제자 폴레처가 그의 새로운 생도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끝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구원의 계획이 산문으로 표현된 작품이 갈매기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작가 리처드 버크가 물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한 이 작품을 저는 좋아합니다. 가브리엘 마르 셸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유한자라는 바로 그 사실 가운데서 그의 본질적 존엄성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두 육체적 유한성과 영적 한계성을 벗어나(부활하며) 영원히 발전한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는 과학과 기술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듀이의 말대로 과학과 기술은 본래 중성적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 정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우리를 승영으로 이끌 수도 있고 속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또 그 방법도 압니다.

“새 계명을 지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